

# 목포수협장 '돈선거' 수사 급물살 상대 후보 운동원 역대 매수 정황

## “현 조합장이 도와주면 돈 주겠다 약속” 진술 확보

지난해 9월 치러진 목포수협장 선거에서 현 조합장이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을 매수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의 공소시효가 12일(4월 기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수사에 속도를 더 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7월 목포시내 한 수산회사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김모(52)씨에게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이 자리에서 최씨에 대한 선거 지원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의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당시 최씨에 대한 개인채무 2000만원을 감해주고, 당선되면 1억원을 추가로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최씨의 아들(33)과 이를 알선한 김모(54)씨를 수협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최씨의 아들은 선거 당일 목포시내 한 수산회사에 현금 40만원을 맡겨놓은 뒤 조합원에게 직접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최씨 부자 등은 혐의 내용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목포수협장 선거의 공소시효 만료(15일)가 임박함에 따라 일단 4일째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뒤 최씨와 최씨 주변인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전남 목포수협 조합장실과 사무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수협 관련 서류와 목포시내 한 수산회사의 송금출납장 등에 대한 자료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회사가 최씨 등이 선거를 전후로 조합원들에게 돈을 건네는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 회사 자금의 정확한 흐름 등을 파악 중이다.

목포수협장 금품 선거에 대한 선관

위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선관위는 전남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수협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P(60)씨 등 4명과 이들 주변인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P씨 등은 목포수협장 선거를 전후로 조합원 3명에게 각각 20만~200만원 총 270만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됐다.

이 가운데 P씨는 지난해 8월께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에서 조합원이자 대의원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는 등 2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선거 당일에도 목포시 죽교동 투표소 앞에서 20만원을 추가로 받는 등 모두 2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새벽 귀가 여대생 성폭행 당해 실신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이 과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일 새벽 3시께 광주시 서구 한 다세대 주택 계단에서 광주 모 대학 1년 이모(여·20)씨가 20대로 추정되는 과한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실신해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다.

최경호기자 kimho@kwangju.co.kr



버스승강장 봄맞이 청소

광주시 북구청 공무원과 유관 기관 및 주민 등 350명은 3일 광주역 버스승강장 유리 튀기와 쓰레기 치우기 등 ‘새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대낮 아파트 강도 검거

### 광주북부경찰

광주북부경찰은 3일 아파트에 침입해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광주일보 2월22일 6면)한 이모(19)씨를 강도치상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북구 일곡동 아파트 김모(여·20)씨의 집에 침입한 뒤 김씨와 할머니(82)의 양손을 결박하고 폭행하는 등 2시간 동안 강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인권위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

### 교과부에 의견 표명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직접 체벌의 대안으로 제시한 ‘간접 체벌’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도입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

견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는 지난 2일 개최한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안건을 의결하고 개정령안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과부 장관에게 표명

했다고 3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 1월 도구나 신체를 사용하는 직접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 훈육 목적의 간접 체벌은 허용한다는 내용의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근거 규정이 신설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사 풀린 경찰들

### 형사반장 등 원룸서 주부들과 화투도박

#### 서부경찰, 2명 현장검거

현직 경찰관 2명이 주부들과 함께 도박판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3일 원룸에서 40~50대 주부들과 화투 도박을 한 광주광산경찰서 소속 형사팀장 박모(55) 경위와 광산서도산파출소 소속 김모(48) 경사를 각각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도박을 한 진모(여·44)씨 등 주부 2명을 같은 혐의로, 도박을 구경한 장모(여·47)씨 등 주부 2명을 도박방

조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경위와 진씨 등 4명은 지난 2일 오후 7시20분부터 같은 날 밤 9시20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광주시 서구 농성동 한 빌라 4층에서 판돈 43만4000원을 걸고 1점당 500원짜리 속칭 ‘고스름’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박 경위 등은 이날 평소 친분이 있던 진씨로부터 연락을 받고 원룸에 가서 도박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최경호기자 kimho@kwangju.co.kr

### 돈·향음 받고 사행성게임장 단속 뺑뺑이

#### 여수경찰 2명 직위해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들과 유착 의혹을 받은 여수경찰이 직위해제됐다. 여수경찰은 3일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업주로부터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으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입건된 신모(49) 경사와 이모(35) 경장을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4월 28일 사행성 게임장 단속 편의를 명목으로 게임물등급위원

회 직원 A(36)씨 등 2명에게 110만원 상당의 향음과 3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행성 게임장 단속과정에서 불법 개·변조 여부 판단을 의뢰할 때 “신속한 판단을 요청한다”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업주들을 비호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업주로부터 돈을 먼저 받고 A씨 등에게 로비한 것으로 보고 이들 사이에 돈이 오간 부분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창희기자 chkim@

## 조폭에 문신시술 14명 입건

### 광주경찰, 마취제 판 1명도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불법 문신 시술업소를 차려놓고 조폭력배 등에게 돈을 받고 문신을 해준 이모(28)씨 등 문신 시술업자 14명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판매한 김모(38)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3월부터 최근까지 광주시 서구 삼촌동에 약세서리 판매점을 차려놓고 조폭력배·간호사·대학생 등에게 1건당 30만~500만원의 돈을 받고 문신을

새겨주는 등 100명으로부터 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불법 문신 시술업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를 1개당 1만원에 판매해 수백 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의사 면허가 없는 이들 문신업자는 단속을 피하려고 원통과 모델 등 출장 문신 서비스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문신 시술 행위가 불법인 점을 알고 조폭력을 갈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나원침 (8259) 김종두



## 자택·서미갤러리 압수수색 한상를 의혹 수사

한상를 전 서울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김민호)는 3일 한 전 청장의 자택과 서미갤러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한 전 청장 자택과 서미갤러리 등 3곳으로 보내 각종 문서와 회계장부, 작품 도록(圖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연합뉴스

## 한 집 9차례나 탄 ‘유별난’ 도둑

○같은 집을 9차례나 탄 ‘유별난’ 30대 절도범이 인가침을 느끼고 잠에서 깨 주인에게 붙잡혀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2)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께 광주시 서구 삼촌동 김모(여·34)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숙옷 1장을 훔치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김씨의 집에서 9차례에 걸쳐 선글라스, 시계 등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김씨의 집 보일림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잇따라 김씨의 집만 계속 털어온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날도 같은 방법으로 집으로 침입해 범행을 하던 중 김씨의 남편에 걸리.

최경호기자 kimho@kwangju.co.kr

전복구이

전복스팀찜

전복문어찜

# 전복구이 전문점 전복장터

전복장터를 찾아주시는 고객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청정해역 완도바다에서 직영 양식장을 운영하여 매일 싱싱한 전복을 고객님의데 올릴 수 있음을 무한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고객님의 한분한분이 최상의 만족을 느낄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양식장 직영 도·소매
- | 활전복 전국 택배 가능 합니다.
- | 모든 메뉴 포장 됩니다.
- | 각종모임 환영, 룸 9실, 대형주차장 완비

전복장터 | 예약문의 062-576-860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367-12

일곡지구  
연초제조창, 롯데칠성, SK주유소, 한양아파트, 현대아파트, 금광아파트

광주·전남  
기능장1호

# 大山프리모남녀가발

타사제품 A/S  
및 관리현영

가발

## 초슬림!!

스킬과 맘이 초극대화하여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며 이질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NAVER

주수(D) 대산프리모 - 검색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 50만원

만원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원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 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 장 이 수 채 011-607-5330

대산프리모가발